

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

기사 인쇄하기

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단장에 KT출신 권순철 씨 취임

입력시간 | 2015.11.03 17:35 | 김현아 기자

[이데일리 김현아 기자] 정부의 K-ICT 전략 중 기가코리아 사업을 이끌고 있는 '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단'의 신임 단장으로 권순철 씨가 취임했다.



권순철 씨는 고려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받은 뒤 미국 텍사스 에이앤엠대(Texas A&M Univ)에서 박사 학위를 땀다. 이후 KT 네트워크시설 본부장, 네트워크연구소장을 거쳐 이석채 회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.

'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'은 2020년까지 개인이 무선으로 기가급 모바일 서비스 누릴 수 있는 스마트 ICT환경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. 언제 어디서나 홀로그래피·초다시점 기반의 개인별 상호 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가급(Gbps) 무선네트워크와 대용량 콘텐츠처리 플랫폼, 홀로그래피·초다시점 단말 및 관련 콘텐츠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. 총 사업비 5501억원(국비 4125억원, 민자 1376억원)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다.

© 종합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- 상업적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

기사 인쇄하기